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면 제사를 회복하자

(히8:1~6)

1.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2.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3.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4.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5.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6.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면 제사를 회복하자>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면 제사를 회복하자!
이 주제가 앞으로도 아마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비참하잖아요, 근데 승자나 패자나 다 비참한데, 패자에게는 그 비참함이 극에 달하게 되지요.
전쟁의 역사를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인류역사를 다 뒤져보면 몇째 안에 들 정도로 처참한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남 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BC 587년에 망할 때, 마지막 왕 이름이 시드기야에요, 1년 반 넘는 기간 동안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다 굶어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과 군사들이 1년 반을 버티다가 야간도주를 하게 됩니다.

야간도주를 하는데 바벨론 군사들이 추격해오니까 왕을 호위하던 군인들이 다 도망가고 왕만 달랑 잡혀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 둘을 죽이고 그 왕의 눈알을 뽑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일이 있음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이 다 불타버립니다, 왕궁은 물론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약탈당하고, 성전에 비축되었던 모든 금은보화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남 왕국 유다가 비록 남북으로 갈라졌지만, 그리고 북 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으로부터 해서 민족의 Identity가 형성되었을 때로부터 기간을 치면 천 년의 세월을 버텼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부터 시작한 다윗왕국으로부터 시작하면 500년을 지탱되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망합니다, 성전이 망하면서 망합니다.
천 년 동안 그 많은 역경과 환란이 있었지만 성전이 살아있고 성막이 살아있는 동안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망하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되면서 나라가 망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선민들의 삶에 있어서 성전이 가졌던 의미가 뭘까요?
성전이 살아있으면 선민의 나라는 살아있는 겁니다, 성전이 망하도록 결정되면 나라가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전은 하늘의 샘입니다, 하늘이 솟아나는 샘터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당시의 이집트나 앗수르, 바벨론, 막강한 나라들 아닙니까?
쉽게 말해, 한때나마 이 땅 위에서 일등을 했던 국가들입니다, 땅의 문화를 융성하게 번영시켰던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번영시켰던 모든 문화가 다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선민의 나라의 특징은 성전을 갖고 있으면서 그 성전이 하늘의 샘터이기 때문에 하늘이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선민들은 뭘 해야 됩니까?
그 성전에 마음을 갖다 대는 거예요.
마음을 갖다 대면 선민의 마음이 하늘 샘터인 성전에서 솟아나는 하늘의 물살들이 선민의 마음을 물줄기로 해가지고 선민이 집으로 돌아갈 때는 그 사람들의 집에서 맺는 관계를 통해서 또 이 하늘의 샘물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선민 전체가 하늘의 샘터인 성전에 마음을 들이댈 때, 하늘의 샘물이 온 선민의 마

음속으로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서, 그것이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밖으로 흘러넘쳐서 이방세계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의 근원, 복의 샘터를 약속했던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핵심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이방인들과 전쟁을 해서 이겼어도, 그건 군사적인 의미의 정복과 승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제 정복했으니까 피정복자들에게도 성전을 통해서 흘러들어온 하늘의 샘물들이 흘러들어가게끔 하자는 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전이 막혀버리고 망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선민들의 마음이 성전에 대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로가 막혀버리니까 샘물이 썩어버립니다.
전 직접 봤어요, 수도꼭지를 달아서 샘물이 흘러나왔는데, 물이 아깝다고 잠가두었더니 세균이 득실거려서 먹을 수 없는 샘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선민들의 마음이 이 하늘의 샘터인 성전에 갖다 대게 되지를 않습니까?
마음이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뭐로 막히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바벨론 문화가 추구했던 것, 앗수르 문화가 추구했던 것, 이집트 문화가 추구했던 것, 그런 가치들로 동일하게 마음이 먹혀서 막혀버릴 때 하늘의 샘이 더 이상 흘러들어오지 않고, 어디로도 하늘의 샘이 나와서 흘러갈 구멍을 찾지 못할 때 성전은 폐쇄된다고 결정해버리고, '성전 폐쇄해라' 결정하고 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 예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BC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1차로 예루살렘을 정복했다가 포로들을 끌고 갈 때 거기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귀족층의 자제들로서 잡혀갑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랬을 것으로 100%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떡하며 살았습니까?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을 열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성전이 망하는 걸 보지 못했고, 소식은 들었겠지만, 그 성전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의 건물은 없어졌어도 성전 건물에 두었던 그 의미가 다니엘의 마음속에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바벨론이 망한 뒤 메데가 들어서서 메데의 다리오 왕 때까지 무려 60년 동안 총리를 하면서 왕들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꿈들을 해석해주면서 지혜자로 왕 위에 있는 총리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늘의 샘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샘터에 마음을 들이대고 그 하늘의 샘물이 다니엘을 통해서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특징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문화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모습이 보이면 사자 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데도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세 번 기도하고 사자 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사자 굴에서도 하늘의 샘물이 흘러들어오면서 사자들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성전중심의 삶의 효과라는 거예요.
어떡하든지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바벨론이 추구했던 것처럼, 이집트가 추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추구해 들어가지 않고, 하늘에서 흘러들어오는 샘물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주변이 하늘의 샘물이 흘러나가면서 정복하고 승리해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세 번씩 기도했던 것, 이것은 포로로 잡혀가서 비로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남 왕국 유다를 정복했지만, 다니엘 한 사람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는 결과가 빚어지게 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 창문을 열고 세 번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까?
매일매일, 그 매일매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매일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뭘 합니까?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1년 된 숫양을 한 마리씩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소제와 전제를 아울러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남 왕국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냐 하면,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은 매일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의미가, 지금도 내가 죽어야 될 것 대신에 나와 동일시되는 양 한 마리가 번제단에

서 죽고 있다, 왜 죽어야 되느냐 하면 죄 때문에 죽는다, 죄가 뭐냐,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세상에 끌려가려고 하는 마음, 마치 다리오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 내가 돈 벌지 않으면 죽는다, 성공하지 않으면 죽는다, 승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압박이 계속 오잖아요?
이런 모든 압박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내가 그것에 굴복하려는 죄 된 마음이 죽어버리고 있다, 라는 걸 기억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전중심의 삶이고, 대제사장은 이렇게 이스라엘 선민 모두에게 각자각자 동일시된 양 한 마리를 아침저녁으로 죽이는 일을 했었고, 출애굽기에 보면 이 상번제에 대한 규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셨어요.
구약의 제사가 모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진짜 참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제사가 완성됐다고 하는 얘기는 제사가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완전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얘깁니다.
가나안 복지 각 곳에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록 예루살렘 성전 뜰에 있지는 않지만 드려지고 있는 상번제가 내가 죽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았을 때에 하늘의 샘물이 계속 흘러들어 와서 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의 세계로 흘러넘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믿습니다, 선지자요 왕이요 대제사장이라고 믿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을 대체했다고 생각하고 예배시간에 하는 설교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는 모든 내용들이 형통을 예배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예배하고 이 세상에서의 안녕과 복을 예배하면서 설교하고 아멘 하는 겁니다,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게 제사고, 그 제사가 예배로 이름을 바꿔 부를 수 있다면 예배는 엄밀하게 내가 죽는 제사여야 돼요, 다른 것이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근데 다른 것이 끼어들면서 제사가 이방신에게 드리는 뇌물로써의 제사처럼 바뀌어버린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그러면서 성전이 폐쇄돼버린 겁니다.
'하나님, 내가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제가 이만큼 바치겠습니다, 요거 잘 드시고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래 제사의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원래 제사의 의미가 뭡니까?
그렇게 내가 세상 것을 좋아해서 세상 것을 이루고 싶을 때, 그렇게 한 것이 죄악이란 걸 알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벌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 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 것으로 기뻐하려 한 것이 죄악이라서 내가 이제 타죽어야 마땅합니다, 하고 죽는 것이 제사인데, 그 제사를 멈춰버렸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지금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는 성전은 어디에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천국, 승천하신 그 천국이 바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이 성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구약에서 성전에 지성소가 있었는데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하는 자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대표로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있는 데로 가셨어요, 진짜 지성소로 가신 거예요.
이 땅의 모형으로서의 지성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이 가야 될 곳은 그 대제사장이 계시는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끄는 곳까지 우리는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대제사장이 자기가 몸소 가는 곳 그곳까지 가는 겁니다, 백성들은.
우리 마음이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천국으로 가려면 우리의 죄가 깨끗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 제사물을 드려야 돼요, 제사물에 안수함으로써 내 죄를 다 그쪽으로 옮겨요.
그리고 그 번제물이 죽을 때 내가 죽는 것으로 여김으로써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지요.

그 제사물을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바쳤다는 얘기에요.

그러므로 달라진 것은, 이 땅에 있는 성전이 하늘의 하나님 보좌 있는 곳으로 바뀐 것이고, 제물이 양과 수송아지였다가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신 예수님의 몸으로써 우리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 달라진 것이지, 제사가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 말고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제사의 본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현재 기독교 교회의 영적 무기력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시간에, 아니면 구역으로 모여서 예배시간에, 가정교회로 모이든 큰 예배당 건물에 한꺼번에 모이든, 모든 예배는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살던 그런 성전 중심의 삶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예배시간에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다니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창문을 열어야 될 곳이 어딥니까?
갈보리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창문을 여는 거예요.
그곳에서 한 번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영원한 사건이 되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드려지는 번제가 되는 거예요, 상번제로서 매일매일 드리는 오늘의 번제뿐만 아니라, 매순간 번제가 됨으로써 성전 중심의 삶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옛날에 있었던 그 성전 앞으로 가는 대신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옛날의 번제단이 주님의 십자가로 바뀐 거예요, 그 번제단에서 내가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향하게 되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서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 제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돼요.
제사는 세상에 대해 죽는 겁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아름답고 지혜로운 청년들을 골라서 왕을 섬기게 하려고 3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데, 바벨론 왕이 자기가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베풉니다.
어차피 왕과 함께 지낼 자들이니까 지금부터 먹여라!
근데 다니엘이 그걸 먹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세 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운을 따라서만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을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세상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요구가 지금도 계속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금신상이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돈이에요, 돈, 금신상에 절하는 것이 뭡니까? 돈 걱정, 돈 없으면 슬퍼하고 돈 많으면 기뻐하

는 것, 이게 금신상에 절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상번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순간마다 내가 돈에 끌려가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슬퍼하고 하나님을 많이 가지면 기뻐해야 할 사람이 이게 웬일인가 하고 깜짝 놀라서, 예루살렘을 향하는데, 예루살렘에는 지금도 상번제의 연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저게 내가 타죽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성전중심의 삶을 살면 성전에 내려오는 하늘의 기운이 그 사람이 저기 변방에 있다고 해도 그 마음이면 하나님의 샘물이 그를 통해 흘러서 국경을 넘어서 이방세계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인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늘의 기운이 흘러들어야 안 따라가고 퍼져나가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믿는다면, 3절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회복해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 때 드리는 제사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몸입니다.
그 몸을 가지고 우리는 순간마다 날마다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으로 제사 드린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제사의 본래 의미에요.
양이 타죽고 송아지가 타죽을 때 그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저게 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제사의 의미였거든요, 죄가 다 옮겨진 내가 죽는.
이 제사를 회복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사물이 바뀌었고, 성전의 위치와 모양과 질이 바뀌었을 뿐, 그리고 대제사장이 영원히 한 분으로 결정된 것이지, 제사가 중단되는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제사를 드리는 성전중심의 생활을 회복할 때 하늘의 샘물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으로 흘러넘쳐나게 될 것이에요.

이 성전중심의 생활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회복시키기 위하여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을 상대로 하는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얼마나 장엄한 복음의 내용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 이 히브리서도 대단한 책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라고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정신이에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는 게 결국은 뭡니까?
날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번제로 드려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당신의 몸을 우리의 제사물로 내주신 대제사장을 따라서 마음이 하늘까지 간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하늘까지 가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 샘의 수로가 된다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말과 행동이 모두 하늘 샘에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세계로, 믿지 않는 과장님에게로, 믿지 않는 사장님에게로, 장관님에게로 하늘의 샘물이 흘러나가게 됨으로써,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얘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축복을 실제로 온전하게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라는 얘기를 다음 부분에서 더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떡하든지 우리는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듯 갈보리 십자가를 향하여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전중심의 삶을 살므로 온전히 제사를 회복하는, 그래서 하늘의 샘터가 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시라고 믿는다면 마땅히 그분이 준비해주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을 온전히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늘의 샘터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